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12. 26.(월) 17:30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 변혜중 (044-200-5730)
		담당자	서기관 김승룡 (044-200-5731)

2023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으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인다

백령-인천, 여수-함구미 등 11개 항로 지원대상 선정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2023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(준공영제 확대) 지원 사업 대상항로 11개를 선정, 발표했다.

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(준공영제 확대지원)은,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,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.

- * (1일 생활권 항로) 섬-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, 추가 운항하는 항로로 운항결손금 100%(국가 50%, 지자체 50%)를 지원
- (연속 적자 항로)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%를 지원

2023년 사업에는 총 16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학계, 연구기관,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▲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-인천, 가거-목포, 여수-거문 항로를, ▲연속 적자 항로에 여수-함구미, 목포-상태서리, 대부-이작, 목포-외달, 통영-용초, 통영-육지, 인천-덕적, 통영-당금 항로 등 총 11개 항로를 최종 선정하였다.

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“준공영제 확대지원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며, “앞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**준공영제 확대 지원 선정 항로(11개)**☐ **1일생활권**

연번	항로	세부항로
1	백령-인천	백령도-대청도-소청도-인천
2	가거-목포	가거도-만재도-목포
3	여수-거문	거문도(동·서도)-초도-손죽도-나로도-여수

☐ **연속적자**

연번	항로	세부항로
1	여수-함구미	여수-제도-개도-자봉-송고-함구미
2	목포-상태서리	목포-북호-북강-옥도-장병-웅곡-상태서리
3	대부-이작	대부도-승봉도-대이작도-소이작도
4	목포-외달	목포-달리-장좌-율도-외달
5	통영-용초	통영-용초-진두-호두-죽도-진두-동좌-서좌-비산-화도
6	통영-육지	통영-연화도-우도-육지도
7	인천-덕적	인천-덕적도-소야도
8	통영-당금	통영-비진내항-비진외항-소매물도-대항-당금